



4월 22일
목요일

보도자료

생명의 땅 으뜸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실국	농식품유통과	과장	강종철	팀장	김 경	☎	286-6440
----	--------	----	-----	----	-----	---	----------

전남쌀 전국민 공급, 판로확보에 날개 달았다

- 전남도, 올 해 새청무 쌀 12,800톤 BGF 리테일 공급 -

전라남도과 BGF리테일·농협전남지역본부가 전남산 고품질 농산물 생산·공급과 판로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라남도는 23일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도지사, 이건준 BGF 리테일 사장, 박서홍 농협전남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쌀 판로확대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BGF리테일은 고객, 가맹점, 지역사회에 좋은 친구같은 기업으로 우리나라 편의점 대표 브랜드 CU를 통해 신선한 상품을 제공하고 농산물 수요를 창출하는 서비스 네트워크 기업이다.

전남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도에서 생산한 새청무쌀 13천 여톤을 올 해 BGF리테일에 단계별로 공급하고 ‘21년부터는 점차 물량을 확대하면서 양파, 마늘, 고구마 등 주요 농산물로까지 공급품목을 늘려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청무는 전남도에서 자체 육성한 품종으로 밥 맛이 우수하고 도복, 수발아 등 농업재해에 강하고 생산단수도 비교적 높아 지난 해 벼 재배면적의 28%를 점유한 전남도 대표품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영광통합RPC, 해남 옥천농협 등 5개 업체에서는 연말까지 구매 약정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어 판로확충은 물론 경영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도지사는 오늘 협약으로 전국 15천여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CU에서 “새청무 쌀을 김밥용으로 전량 사용하게 되어 전남쌀의 우수성을 전국 소비자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대량 구매업체를 발굴, 호혜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전남의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에게 지속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매년 10대 브랜드 쌀을 선정하고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다양한 홍보로 전남 쌀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 협약식 후 사진 제공 예정